

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10)*

—권8, 14:09-15:05 부분을 중심으로—

김천학**

요약

이 글은 점토석독구결 자료인 『瑜伽師地論』(Yogacārabūṃmi) 권8의 <14:09-15:05> 부분에 대한 잠정적인 해독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.

핵심어: 유가사지론, 점토구결

이 글은 점토석독구결인 『유가사지론』 권8의 일부(14:09-15:05)에 대하여 해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.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‘業雜染’에 대한 9가지 연고 중 ‘業分別’에 관한 것이다.¹⁾

구체적인 해독안은 다음과 같다. 해독안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A-E

*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(2005년 5월 13일)에서 강독한 요지문을 수정한 것이다. 수정한 내용은 주로 강독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다.

**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국어실 조교.

1) 業分別은 [1] 補特伽羅相差別, [2] 法相差別의 2종 차별로 말미암는다. 또한 이 두 차별에는 10가지 善不善業道가 있다(① 殺生, ② 不與取, ③ 欲邪行, ④ 妄語, ⑤ 離間語, ⑥ 麤惡語, ⑦ 綺語, ⑧ 貪欲, ⑨ 瞋恚, ⑩ 邪見). 박진호(2004:218-9) 참조. 이 글에서 다루는 『유가사지론』 권8(14:09-15:05) 부분은 [1] 補特伽羅相差別의 ⑥ 麤惡語에 속한다.

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기로 한다.

- A: 원문에 현도된 점도와 부호를 판독한 결과.
 B: 점도에 대응하는 자토 표시.
 C: 자토석독구려문으로 재구성한 결과.
 D: 구결문에 의거하여 현대 국어로 축자역한 결과.
 E: 해당 부분의 역경원 번역.

<유가 권8 14:09>

- A: 復次[23(·)]麤惡語者[51(·)]者[23~33(·)]此[33(·)]是捨句[22~32(·), 55(·)]
 B: 復次[➔]麤惡語者[1]者[xΛ 1]此[1]是捨句[11, ㄱ]
 C: 復 次➔ 麤惡語者(11) 1 {者}xΛ 1 此1 是 捨句 11 ㄱ
 D: 또 다음으로 麤惡語者라 하는 것은 이것은捨句이며
 E: (다음에) 추악한 말을 하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다.

<유가 권8 14:09-10>

- A: 此中[44(·)]尸羅支[43(·)]所攝[15~25(-)#15~25(-), 22~32(·)#22(·), 43(1)#43(:)²⁾]故[21(·)]名[54(·)]語无擾動[53(·), 55(·)]
 B: 此中[+]尸羅支[ㄴ]所攝[尸, 11, xㄴ]故[ノ]名[下]語无擾動[+, ㄱ]
 C: 此 中+ 尸羅支ㄴ 攝(ノ)尸 所 11xㄴ{故}ノ 名下 語无擾動+(ノ)ㄱ
 D: 이 가운데 尸羅³⁾의 갈래로攝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語无擾

2) 뒤에 연결되는 구문과 비교하면 43(1)으로 보아야 하겠지만,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43(:)에 가깝다. 그러나 43(:)으로 보더라도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은 문제가 있다.

3) 시라(尸羅): Śīla. 6바라밀의 1. 계율(戒律), 율(律)이라 번역. 부처님이 제정한 법을 지켜 허물이 없도록 하고, 악을 멀리 여의는 것(운허용하(1961) 『불교사전』).

動이라 하며

E: 이 중에, 쉬일라(尸羅)의 갈래에 딸렸기 때문에 말에 요동이 없다고 하며,

<유가 권8 14:10-11>

A: 文句美滑[21(·)]故[41(·)]名[54(·)]悅耳[53(·),54~55(:)]

B: 文句美滑[X⁴]故[_上]名[_下]悅耳[_上,x_上]

C: 文句 美滑X 故_上 名_下 悅耳_上x_上

D: 文句가 美滑하여서 그런 까닭에 이름하여 悅耳라 하며

E: 문구가 아름답고 매끄럽기 때문에 귀를 기쁘게 한다 하며,

<유가 권8 14:11-12>

A: 増上欲解[43(·)]所發起[33(\)]故[33~43(·),43(·),⁵⁾55(·)]非[역독선]假
僞[43(l)]故[55(·)]非[역독선]諛媚[43(l)]故[21(·)]名[=54(·)]爲稱心[5
3(·),54~55(:)]

B: 増上欲解[m]所發起[ノㄱ]故[_印,m,ㄱ]非假僞[xm]故[ㄱ]非諛媚[xm]
故[ノ]名[_下]爲稱心[_上,x_上]

C: 増上欲解m 發起ノㄱ 所{故}印mㄱ 假僞 非(失)xm{故}ㄱ 諛媚 非
(失)xm{故}ノ 名_下 {爲}稱心_上x_上

D: 増上の 欲解로 일으킨 바이기 때문이며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며
아침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稱心이라 하며

4) 21(·)에 대해 황선엽(2003 각필 프로젝트 연구 모임)에서는 <구역인왕경>의
“一 非失_上 異 非失_上 故_上 名_上 續諦:ノチリ_上<구인 14:07-09>”를 근거
로 연결어미적인 ‘x_上’로 추정하였고, 서민옥(2005)의 부록에서는 ‘x_上’로 보
았다. 이승재 외(2005)는 좀더 신중을 기해 ‘X’로 보았다.

5) ‘33~43(·),43(·)’이 아니라 ‘43(·)’으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. 또한 구결의 현
토 양상을 고려하면, ‘33~43(·),43(·)’은 ‘所發起’에 달려야 하지만 ‘故’에 나타
난 점이 특이하다.

E: 왕성하게 알려고 함을 일으키게 되고 거짓이 아니고 아침함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맞다고 하며,

<유가 권8 14:12-13>

A: 不增益[43(ㄹ)]故[55(·)]應順時機[44(·),=22(·)]引[역독선]義利[34(·), 43(ㄹ)]故[21(·)]名[54(·)]爲可愛[53(·),54~55(:)]

B: 不增益[x^m]故[ㄴ]應順時機[+, 3]引[역독선]義利[乙, x^m]故[ㄴ]名[下]爲可愛[+, x^ㄴ]

C: 增益(尸) 不(多)x^m{故}ㄴ 時機+ 應順(ㄴ) 3 義利乙 引x^m{故}ㄴ 名下 {爲}可愛 +x^ㄴ

D: 增益하지 않는 까닭이며 時機에 따라 義利를引하는 까닭으로 이름하여 可愛라 하며

E: 더 늘어나지 않고 시기를 따라 옳음과 이익을 이끌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다 하며,

<유가 권8 14:13-14>

A: 趣涅槃宮[44(·),21(·)]故[41(·)]名[54(·)]先首[53(·),54~55(:)]

B: 趣涅槃宮[+,X]故[ㄷ]名[下]先首[+,x^ㄴ]

C: 涅槃宮+ 趣X 故ㄷ 名下 先首 +x^ㄴ

D: 涅槃宮에 나아가서 그런 까닭으로 이름하여 先首라 하며

E: 열반의 궁전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두머리라 하며,

<유가 권8 14:14>

A: 文句[=22~32(·), 구결자(ㄱ)]可味[42(\\),21(·)?]故[41(·)]名[54(·)]美[54~55(:)]妙[53(·),지시선(/)6]

6) <유가 권8 14:15-16>에 나오는 ‘지시선’과 비교하면 분명하지 않다.

B: 文句[ㄱ]可味[ㄴㅇㄷ,X]故[ㄷ]名[下]美[xㄴ]妙[ㄹ]

C: 文句ㄱ 味ㄴㅇ{可}ㄷX 故ㄷ 名下 美妙ㄹxㄴ

D: 文句가 음미할 만한 것이어서 그런 까닭으로 이름하여 美妙라 하며

E: 문구를 음미할 만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묘하다 하며,

<유가 권8 14:15>

A: 善[55(·)]釋文句[34(·),21(·)]故[41(·)]名[54(·)]分明[53(·),55(·)]

B: 善[ㄴ]釋文句[乙,X]故[ㄷ]名[下]分明[ㄹ,xㄴ]

C: 善ㄴ 文句乙 釋X 故ㄷ 名下 分明ㄹxㄴ

D: 잘 文句를 풀이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分明이라 하며

E: 잘 문구를 풀이하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하며,

<유가 권8 14:15-16>

A: 顯然有趣[43(ㄹ)?]故[21(·)]名[54(·)]易可解[54~55(·)]了[53(·),지시선
(/)]

B: 顯然有趣[xㄴ]故[ㄴ]名[下]易可解[xㄴ]了[ㄹ]

C: 顯然 有趣xㄴ{故}ㄴ 名下 易可解了ㄹxㄴ

D: 顯然히 有趣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易可解了라 하며

E: 드러나게 뜻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환히 알 만하다 하며,

<유가 권8 14:16>

A: 攝受正法[34(·),43(ㄹ),구결자(乙)]故[21(·)]名[54(·)]可施功勞[53(·),
55(·)]

B: 攝受正法[乙,xㄴ]故[ㄴ]名[下]可施功勞[ㄹ,xㄴ]

C: 正法乙 攝受xㄴ{故}ㄴ⁷⁾ 名下 可施功勞ㄹxㄴ

7) ‘故’를 부독자로 처리할 경우, ‘ㄴ’의 기능을 설명하기 어렵다. ‘ㄴ’를 선행하는 ‘ㄴ’의 말음첨기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, ‘ㄴ’의 위치가 ‘故’ 뒤에 나오는 점

D: 正法을 攝受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可施功勞라 하며

E: 바른 법을 껴잡아 들이기 때문에 공로를 베풀 만하다 하며,

<유가 권8 14:17>

A: 離愛味心[43(·),4자합부]之所發起[33(\\),43(·)]故[21(·)]名[54(·)]无所依止[53(·),54~55(:)]

B: 離愛味心[ㄴ]之所發起[ㄴ,ㄴ]故[ㄴ]名[下]无所依止[ㄴ,xㄴ]

C: 離愛味心ㄴ{之} 發起ㄴ 所ㄴ{故}ㄴ 名下 无所依止 ㄴxㄴ

D: 離愛味心으로 일으킨 바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无所依止라 하며

E: 사랑하는 맛을 여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무르는 바가 없다고 하며,

<유가 권8 14:18>

A: 不過[2자합부-역독선]度量[34(·),43(l)]故[21(·)]名[54(·)]非可厭逆[53(·), 54~55(:)]

B: 不過度量[乙,xㄴ]故[ㄴ]名[下]非可厭逆[ㄴ,xㄴ]

C: 度量乙 不過xㄴ{故}ㄴ 名下 非可厭逆 ㄴxㄴ

D: 度量을 不過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非可厭逆이라 하며

E: 길이와 용적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하거나 거스릴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,

<유가 권8 14:18-19>

A: 相續廣大[43(l),경계선⁸⁾]故[21(·)]名[54(·)]无邊无盡[53(·),51(:)#51~52(:)]

B: 相續廣大[xㄴ]故[ㄴ]名[下]无邊无盡[ㄴ,x l]

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. 훗날의 연구를 기대한다.

8) ‘大’ 아래 흐릿하게 ‘경계선’이 그어져 있지만, 기능을 파악하기 어렵다.

C: 相續廣大x{故}ノ 名下 无邊无盡x 1

D: 서로 이어져 廣大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无邊无盡이라 한다.

E: 계속하며 넓고 커지기 때문에 그지없고 다함이 없다고 한다.

<유가 권8 14:19-20>

A: 又從無擾動語[34(·),42(·)]乃[24(·)]至[역독선]無邊无盡語[44(·),22~32(·)]應知[42(·),51(·)]略[45(·)]攝[15(·)]爲三種語[24(·),33(·),33~43(·),+11(·)]

B: 又從無擾動語[乙,七]乃[ᄃ]至無邊无盡語[十, 11]應知[ノㄱ七, 1]略[ㄱ]攝[ㄴ]爲三種語[ᄃ, 1, 1, 1]

C: 又 無擾動語乙 從七 乃ᄃ 無邊无盡語十 至 11 知[ノㄱ{應}七 1 略 ㄱ 攝(ᄃ) ㄴ 三種語 {爲}ᄃ 1 1 1]

D: 또 無擾動語부터 無邊无盡語에 이르기까지, 알아야 할 것이다, 간략히 묶어서 三種의 말이 되는 것이다.

E: 또, 요동함이 없는 말로부터 그지없고 다함이 없는 말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의 말에 간략하게 포섭되는 줄 알아야 하리니,

<유가 권8 14:20-22>

A: 一尸羅律儀所攝語[33~43(·),53(·)]謂一種[22~32(·),55(·)]二等歡喜語[33~43(·),53(·)]謂三種[22~32(·),55(·)]三說法語[33~43(·),53(·)]謂其所餘[33(·)?,51(·)]

B: 一尸羅律儀所攝語[印, 1]謂一種[1, 1]二等歡喜語[印, 1]謂三種[1, 1]三說法語[印, 1]謂其所餘[1, 1]

C: 一尸羅律儀所攝語印 1 謂 一種 1 1 二 等歡喜語印 1 謂 三種 1 1 三 說法語印 1 謂 其 餘 1 所(1) 1

D: 첫째는尸羅律儀所攝語이니, (이는) 一種이며, 둘째는 等歡喜語이니, (이는) 三種이며, 셋째는 說法語이니, (이는) 그 나머지이다.

E: 첫째는 쉬일라와 율의에 포섭되는 말로서 한 가지이며, 둘째는 같이 기빠하는 말에는 세 가지이며, 셋째는 법을 말하는 말로서 그 나머지의 것이다.

<유가 권8 14:22-14:23>

A: 卽此最後[44(·)]又有三種[33~43(/)]應知[42(\),51(·)]

B: 卽此最後[+]又有三種[ㄴㄱ 印]應知[ㄴㄱ七, 1]

C: 卽 此 最後+ 又 三種 有ㄴㄱ 印 知ㄴㄱ{應}七 1

D: 곧 이 가장 나중의 것에는 또 3종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.

E: 곧, 이 맨 나중의 것에는 또 세 가지가 있는 줄 알아야 하리니,

<유가 권8 14:23-15:02>

A: 一所趣圓滿語[33~43(·),53(·)]謂初[=22~32(·),55(·)]—[지시선(/)]
二文詞圓滿語[=33~43(·),53(·)]謂次[42(·)]二[=22~32(·),55(·)]三
方便圓滿語[33~43(·),53(·)]謂其所餘[51(·)]

B: 一所趣圓滿語[印, ㄴ]謂初[11, ㄴ]—二文詞圓滿語[印, ㄴ]謂次[七]二[11,
ㄴ]三方便圓滿語[印, ㄴ]謂其所餘[1]

C: 一 所趣圓滿語印ㄴ 謂 初 一 11 ㄴ 二 文詞圓滿語印ㄴ 謂 次 七 二
11 ㄴ 三 方便圓滿語印ㄴ 謂 其餘(1) 所(11) 1

D: 첫째는 所趣圓滿語이니, (이는) 처음의 하나이며, 둘째는 文詞圓滿語이니, (이는) 그 다음의 둘이며, 셋째는 方便圓滿語이니, (이는) 그 나머지이다.

E: 첫째는 뜻하는 바가 뚜렷한 말로서 처음의 하나이며, 둘째는 글에 쓰인 말이 뚜렷한 말로서 다음의 두 가지이며, 셋째는 방편이 원만한 말로서 그 나머지의 것이다.

<유가 권8 15:02-03>

A: 又於未來世[44(·)]可愛樂[=42(\),43(l)]故[21(·)]名可愛語[53(·),54~55(:)]

B: 又於未來世[+]可愛樂[ノㄱ七,xㄴ]故[ノ]名可愛語[ㄴ,xㄴ]

C: 又 {於}未來世+ 愛樂ノㄱ{可}七xㄴ{故}ノ 名(下) 可愛語ㄴxㄴ

D: 또 未來世에서 愛樂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可愛語라 하며

E: 또, 미래의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할 만하기 때문에 좋아할 만한 말이라 하며,

<유가 권8 15:03-04>

A: 於過去世可愛樂[42(\),=43(l)]故[21(·)]名[54(·)]可樂語[53(·),54~55(:),3자합부]

B: 於過去世可愛樂[ノㄱ七,xㄴ]故[ノ]名[下]可樂語[ㄴ,xㄴ]

C: {於}過去世(+) 愛樂ノㄱ{可}七xㄴ{故}ノ 名下 可樂語ㄴxㄴ

D: 過去世에서 愛樂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可樂語라 하며

E: 과거의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할 만하기 때문에 좋아할 만한 말이라 하며,

<유가 권8 15:04-05>

A: 於現在世事[44(·),35(·),4자합부]及領受[2자합부-역독선]可愛樂[42(\),34(/),35(·),43(l)]故[21(·)]名[54(·)]可[42(·)]欣語[53(·)]及可意語[53(·),33(·),33~43(·)]應知[42(\),51(·)]

B: 於現在世事[+,ㄱ]及領受可愛樂[ノㄱ七,ㄴㄱ 乙,ㄱ,xㄴ]故[ノ]名[下]可欣語[ㄴ]及可意語[ㄴ,ㄱ,印]應知[ノㄱ七,ㄴ]

C: {於}現在世事+(ㄴ)ㄱ 及 愛樂ノㄱ{可}七ㄴㄱ 乙 領受(ㄴ)ㄱxㄴ{故}ノ 名下 可欣語ㄴ 及 可意語ㄴ(ㄴ)ㄱ 印 知ノㄱ{應}七ㄴ

D: 現在世의 일에 있고 愛樂할 만한 것을 領受하고 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可欣語니 可意語니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.

E: 현재 세상의 일과 받아들이는 것에서 사랑하고 좋아할 만하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말이라 하고 뜻에 맞는 말이라 하나니.

참고문헌

- 김성주(2005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(6)』, 『口訣研究』 14, pp. 213-232.
- 김영옥(2001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(點吐)의 해독 방법 연구』, 『口訣研究』 7, 구결학회, pp. 57-77.
- 남풍현(1999), 『『瑜伽師地論』 釋讀口訣의 研究』, 태학사.
- 박진호(2004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(2)』, 『口訣研究』 12, 구결학회, pp. 215-232.
- 서민욱(2004), 『『如』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』, 『口訣研究』 13, 구결학회, pp. 175-220.
- 서민욱(2005ㄱ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(5)』, 『口訣研究』 14, pp. 197-212.
- 서민욱(2005ㄴ), 『『瑜伽師地論』 卷 5・8의 點吐口訣 研究』, 카톨릭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.
- 이승재 외(2005),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 1, 태학사.
- 이 용(2004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(3)』, 『口訣研究』 12, 구결학회, pp. 233-247.
- 이전경(2004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(4)』, 『口訣研究』 13, pp. 221-243.
- 장경준(2002), 『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-『유가사지론』 권5, 8을 대상으로-』, 『口訣研究』 9, 구결학회, pp. 205-225.
- 장경준(2004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(1)』, 『口訣研究』 12, 구결학회, pp. 191-213.
- 장경준(2005), 『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방법 연구』,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.

[120-836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4-8 101호]

E-mail: chak@chol.com

접수일자: 2005. 6. 30.

게재결정: 2005. 7. 30.

A Study on Cipher Kugyol Inscribed in

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

—Focusing on vol. Ⅷ. 14:09-15:05—

Kim, Chun-Hak

This paper presents a tentative decipherment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a part of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 vol. 8.

Key word: cipher kugyol(點吐口訣),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